

2022 개정
교육과정

핵심 정리부터 실전 문제까지,
최고의 내신 대비

평가문제집

중학교 국어 2-2

핵심 정리로 교과서 완벽 이해
다양한 실전 문제로 내신 성적 점프
서술·논술형 강화로 수행평가 대비

서혁 교과서편



하이
라이트

지학사

핵심 정리부터 실전 문제까지,
최고의 내신 대비

평가문제집

중학교

국어 2-2

서혁 교과서편

시험성적 올리는 이 책의 구성

비법 1 선생님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시험 출제 포인트 & 소단원 핵심 확인하기

1. 개성적인 표현

1.1. 1차 시험 (2019년)

1.1.1. 1차 시험 (2019년) - 1.1.1. 1차 시험 (2019년)

1.1.2. 1차 시험 (2019년) - 1.1.2. 1차 시험 (2019년)

1.1.3. 1차 시험 (2019년) - 1.1.3. 1차 시험 (2019년)

2. 2차 시험 (2019년)

2.1. 2차 시험 (2019년) - 2.1. 2차 시험 (2019년)

2.2. 2차 시험 (2019년) - 2.2. 2차 시험 (2019년)

2.3. 2차 시험 (2019년) - 2.3. 2차 시험 (2019년)

[소단원 핵심 미리 보기]

- ▶ **시험 출제 포인트** 소단원에서 배울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 **소단원 핵심 정리** 소단원의 핵심 개념과 핵심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 **핵심 확인 문제** 소단원 핵심 내용을 문제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법 2 소단원 제재와 학습 활동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교과서 완벽하게 이해하기

1. 1차 시험 (2019년)

1.1. 1차 시험 (2019년) - 1.1. 1차 시험 (2019년)

1.2. 1차 시험 (2019년) - 1.2. 1차 시험 (2019년)

2. 2차 시험 (2019년)

2.1. 2차 시험 (2019년) - 2.1. 2차 시험 (2019년)


2.2. 2차 시험 (2019년) - 2.2. 2차 시험 (2019년)

[소단원 핵심 확인하기]

- ▶ **핵심 훑기** 소단원 제재의 핵심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 ▶ **핵심 체크** OX 문제로 핵심 내용을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 ▶ **핵심 내용 확인 문제** 소단원 제재의 주요 학습 내용을 문제를 풀며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활동 점검하기]

- ▶ **시험에 꼭 나오는 활동 확인 문제** 학습 활동 예시 답을 참고하여 꼼꼼하게 풀어 보면 교과서 학습 내용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차례

1

다채로운 표현, 함께 만드는 영상

(1) 개성적인 표현	8
별_ 정진규	12
양반전_ 박지원	18
<hr/>	
(2) 영상으로 표현하기	34
<hr/>	
■ 중간·기말 시험 대비 문제	46
<hr/>	
■ 서술·논술형 대비 문제	54



2

슬기로운 독서, 계획적인 발표

(1) 능동적으로 읽기	60
<hr/>	
(2) 점검하며 발표하기	78
<hr/>	
■ 중간·기말 시험 대비 문제	98
<hr/>	
■ 서술·논술형 대비 문제	104





3

체계적인 음운, 과학적인 문자

(1) 우리말 음운 체계	110
(2) 우리말 문자 체계	128
■ 중간·기말 시험 대비 문제	144
■ 서술·논술형 대비 문제	150

4

비판적인 읽기, 돌아보며 글 쓰기

(1) 복합양식 자료나 글 평가하며 읽기	156
못생긴 농산물의 반란	158
(2) 복합양식 자료 활용하여 점검·조정하며 글 쓰기	174
■ 중간·기말 시험 대비 문제	189
■ 서술·논술형 대비 문제	195



1

다채로운 표현, 함께 만드는 영상



(1) 개성적인 표현 문학

별 _ 정진규

양반전 _ 박지원

(2) 영상으로 표현하기 매체

대단원 학습 목표

- 자신의 경험을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으로 형상화할 수 있다.
- 복합양식성을 고려하여 영상 매체 자료를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다.

(1) 개성적인 표현

자신의 경험을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으로 형상화할 수 있다.

- 시 「별」과 「먼 후일」을 감상하고, 역설과 반어의 표현 방법과 효과 이해하기
- 소설 「양반전」을 감상하고, 풍자의 표현 방법과 효과 이해하기

핵심

- 역설, 반어, 풍자의 뜻과 효과
- 「별」의 주제와 역설적 표현
- 「먼 후일」의 화자의 정서와 반어적 표현
- 「양반전」의 창작 의도와 풍자적 표현

(2) 영상으로 표현하기

복합양식성을 고려하여 영상 매체 자료를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다.

- 영상 매체의 특성과 영상의 구성 요소 이해하기
- 영상 제작 과정을 이해하고, 영상을 제작하여 공유하기

핵심

- 영상 매체의 복합양식성
- 영상의 구성 요소
- 영상의 제작 과정

1

개성적인 표현

소단원 핵심 미리 보기

1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의 형상화

형체로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을 어떤 방법이나 매체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형상으로 나타냄.

- (1)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 자신의 경험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개성이 드러나게 창의적으로 표현하여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
- (2) 개성적인 표현의 형상화 방법: 경험이나 느낌, 생각을 개성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역설, 반어, 풍자 등의 문학적 표현 방법을 활용함.

2 개성적인 표현 방법

(1) 역설

뜻	겉보기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중요한 사실이나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 방식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현에 담긴 사실이나 진리를 더욱 강조하여 나타냄. 모순되는 사물이나 관념을 연결하여 읽는 이에게 참신한 느낌을 줌.
예	<p>님은 갔지마는 나는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p> <p>→ 임이 갔는데 임을 보내지 않았다는 모순된 표현을 통해, 임은 떠났지만 마음속으로는 임을 떠나보내지 않았음을 드러내며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강조함.</p>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이르는 말

(2) 반어

뜻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실제와 반대되게 나타내어 강조하는 표현 방식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욱 강조하여 나타냄. 맥락에 따라 대상을 비꼬거나 비판하는 뜻을 담을 수 있음.
예	<p>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 김소월, 「진달래꽃」</p> <p>→ 임과의 이별을 몹시 슬퍼하는 마음을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반어적으로 표현하여 이별의 슬픔을 강조함.</p>

(3) 풍자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

뜻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고 비꼬아 웃음을 유발하면서 개인 또는 사회의 부정적 현상, 모순, 어리석음 등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표현 방식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읽는 이에게 대상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갖게 함. 부당한 현실이나 힘 있는 대상을 효과적으로 비판함.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읽는 이와 공감대를 형성함.
예	<p>한 줄의 시는커녕 /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 많은 돈을 벌었고 / 높은 자리에 올라 /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 김광규, 「묘비명」</p> <p>→ 문학이나 예술과 같은 정신적 가치보다 돈이나 권력과 같은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풍자함.</p>

시험 출제 포인트

- 1 「별」의 주제를 형상화한 역설적 표현
- 2 「먼 후일」의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 반어적 표현
- 3 「양반전」의 창작 의도를 드러낸 풍자적 표현

핵심 확인

문제

정답과 해설 2쪽

1.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신의 경험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이/가 드러나게 형상화하여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적인 발상과 표현의 형상화라고 한다.

2. 다음 시구에 쓰인 표현 방법이 역설이면 ‘역’, 반어이면 ‘반’이라고 쓰시오.

- (1)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 길이 있다 ()
- (2) 씹던 껌을 아무 데나 뱉, 뱉지 못하고 /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으로 달려가는 / 너는 참 바보다 ()

3. 다음 중 풍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자의 웃음을 유발한다.
- ② 대상을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 ③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
- ④ 대상의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낸다.
- ⑤ 과장하거나 비꼬기의 방법이 쓰인다.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㉔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별들을 낳을 수 있다

㉕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둠다



핵심 훑기

1. 시구의 대조적 의미

지금 대낮인 사람들

- 걱정 없이 현실에 만족하며 살고 있음.
- 꿈과 희망을 갖지 않음.
-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움.



지금 어둠인 사람들

- 걱정거리가 있으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짐.
-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음.

2. 역설적 표현의 효과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둠다



- 밝은 '대낮'을 '어둠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모순된 표현임.
- 모순된 표현을 통해 걱정거리가 없고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꿈과 희망을 보지 못해 미래가 어두울 수 있다는 의미를 강조함.

핵심 체크

정답과 해설 2쪽

1. 이 시에서 꿈과 희망을 상징하는 소재는 '대낮'이다. (○, ×)
2. 이 시에서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 ×)
3. 이 시에서 '지금 어둠인 사람들'의 미래는 절망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 ×)
4. 이 시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시이다. (○, ×)

핵심 내용 확인 문제 01

01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가 곁으로 드러나 있다.
- ② 겨울을 계절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 ③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드러나 있다.
- ④ 동일한 시어와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⑤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절망감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시의 화자의 특성

- 시인을 대신하며, 시인과 유사한 존재, 시인과 성별이나 나이가 다른 사람, 동식물이나 사물 등이 화자가 되기도 함.
- 화자가 시에 '나', '우리'처럼 직접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시적 상황과 대상에 대한 정서와 태도를 드러냄.
- 시의 주제와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02 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화자의 감정을 강조하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ㄴ. 서로 반대되는 이미지를 대조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ㄷ.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반대로 표현하는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ㄹ.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상징적 의미를 지닌 소재들을 사용하고 있다.

- | | | |
|--------|--------|--------|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 ④ ㄴ, ㄹ | ⑤ ㄷ, ㄹ | |

0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단정적인 어조로 의미를 강조하고 있군.
- ② 개성적인 표현 방법 중 역설을 사용하였군.
- ③ 대상을 의인화하여 친근감을 느끼게 하고 있군.
- ④ 상식에 맞지 않는 표현이 쓰여 독자의 주의를 끌고 있군.
- ⑤ 서로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결합하여 참신한 느낌을 주고 있군.

서술형

04 ㉠에 담긴 함축적 의미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조건

- 이 시의 주제가 드러나게 쓸 것.
- '~ 수 있다.'로 끝나는 한 문장으로 쓸 것.

1 시의 내용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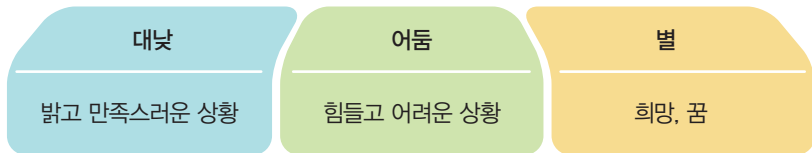
(1) 시에 나타난 별의 특성 이해하기

별의 특성

-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가 마땅하다.
-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2) 시어와 시구의 의미 파악하기

• 시어의 의미



• 시구의 의미



(3) 시의 주제 파악하기

시의 주제

예시 답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만이 희망과 꿈을 찾을 수 있다.

01. 이 시에 드러난 '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손으로 만질 수 없다.
- ② 셀 수 없이 많이 있다.
- ③ 멀리 있어서 닿을 수 없다.
- ④ 어둠 속에서만 볼 수 있다.
- ⑤ 높은 곳에 있어서 우러러보아야 한다.

02. 이 시에서 대조적인 의미로 쓰인 시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① 별-대낮
- ② 대낮-어둠
- ③ 별들-사람들
- ④ 대낮-사람들
- ⑤ 어둠-사람들

03. 이 시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걱정거리가 없고 현실에 만족하기 때문에 꿈을 꾸거나 희망을 갖지 않는군.
- ② '별들이 보인다'라는 표현은 힘든 삶을 극복할 수 있는 꿈이나 희망이 보인다는 것을 나타내는군.
- ③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느끼는 답답하고 절망적인 심정을 표현한 것이군.
- ④ '지금 어둠인 사람들'은 슬픔이나 걱정을 안고 하루하루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타낸 것이군.
- ⑤ '별들을 낳을 수 있다'라는 표현은 현재는 힘들더라도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는 표현이군.

2 시에 쓰인 역설과 그 효과 알아보기

(1) 다음 시구가 겉으로 보기에 이치에 맞지 않는 까닭 이해하기

시구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

이치에 맞지 않는 까닭

예시 답 '대낮'은 '환히 밝은 낮'이라는 의미이므로 '어둡다'라는 서술어와 어울리지 않는다.

(2) 역설적 표현이 쓰인 시구의 의미 파악하기

지금 대낮인 사람들이 어두운 것은 왜일까? **별**
을/를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

별 은/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과 꿈을 의미해.

그러니까 대낮인 사람들이 어두운 것은 희망과 꿈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

이 표현은 걱정거리가 없고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꿈과 희망을 보지 못한다는 의미 을/를 나타내는 거구나.

(3) 시에 쓰인 역설의 표현 효과 이해하기

예시 답 •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라는 모순된 표현을 통해 독자의 주의를 끌고 그 의미를 되짚어 보게 하는 효과가 있다.

•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였던 긍정적 이미지로서의 밝음, 부정적 이미지로서의 어둡이라는 상식을 깬으로써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꿈을 꿀 수 있다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개념 속 속

역설의 뜻

역설은 겉보기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중요한 사실이나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 방식임.

역설의 효과

- 표현에 담긴 사실이나 진리를 더욱 강조하여 나타냄.
- 모순되는 사물이나 관념을 연결하여 읽는 이에게 참신한 느낌을 줌.

04. 이 시에서 <보기>와 같은 표현 방법이 쓰인 시구로 적절한 것은?

보기

시의 화자는 자신의 생각을 개성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겉보기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중요한 사실이나 진리를 담아내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 ① 별들의 바탕은 어둡이 마땅하다
- ②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 ③ 지금 어둡은 사람들에게만 / 별들이 보인다
- ④ 지금 어둡은 사람들만 / 별들을 낳을 수 있다
- 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

05. 다음 중 역설의 표현 효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독자의 주의를 끌 수 있다.
- ㄴ. 의미를 인상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 ㄷ. 독자가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ㄹ. 독자에게 친숙한 느낌을 줄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06. <보기>에서 역설의 표현 방법이 쓰인 시구 두 개를 찾아 쓰시오.

보기

은행나무 열매에서 구린내가 난다
주의해 주세요 구린내가 향기롭다

밤풀이 여물면서 밤송이가 따가워진다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가 너그럽다
- 함민복, 「독은 아름답다」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 ㉡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 ㉢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별들을 낳을 수 있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

01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가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의 지난 행동을 성찰하고 있다.
- ② 다른 대상에 빗대어 화자의 처지를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 ③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소재를 사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말투로 친근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 ⑤ 자연과 인간이라는 대비되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02 이 시를 쓴 시인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다.
- ②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준다.
- ③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진솔하게 전달한다.
- ④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부당한 차별을 고발한다.
- ⑤ 미래를 보지 못하는 이들의 어리석음을 비판한다.

고난도

03 이 시와 <보기>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 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 정호승, 「봄 길」

- ① 단정적 어조로 말하고 있다.
- ② 다양한 종류의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고 있다.
- ③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④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이 존재함을 노래하고 있다.
- ⑤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의미를 인상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중요

04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야.
- ② ㉠은 실패를 거듭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 ③ ㉢은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들이야.
- ④ ㉢은 꿈을 꾸며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이야.
- ⑤ ㉢은 밝은 미래를 맞이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다.

중요

서술형

05 ㉠에 쓰인 '별'의 함축적 의미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십시오.

조건

- ㉠에 나타난 별의 특성이 드러나게 쓸 것.
- 이 시의 주제와 관련지을 것.
- '별은 ~는 존재로, ~을 의미한다.'의 형태로 쓸 것.

[06~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어제도 오늘도 아니 잊고
먼 훗날 그때에 ㉠ '잊었노라'

06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질문의 형식으로 화자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자연 현상으로부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 ③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말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이별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극복의 과정을 다루고 있다.
- ⑤ 시각적, 청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중요

07 이 시의 화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며 '당신'과 다시 만날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군.
- ② 현재와 미래를 오가면서 '당신'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군.
- ③ 현재와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④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여 떠나간 '당신'을 결코 잊지 못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군.
- ⑤ 먼 후일에 '당신'과 이별할 날을 가정하여 '당신'에 대한 애절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군.

08 이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3음보를 반복하고 있다.
- ② 일정한 글자 수를 반복하고 있다.
- ③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 ④ 첫 연을 마지막 연에서 반복하고 있다.
- ⑤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며 각 연을 마무리하고 있다.

중요

고난도

09 ㉠과 발상 및 표현이 유사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 서정주, 「견우의 노래」
- ㉡.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 김소월, 「진달래꽃」
- ㉢.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 지금은 가야 할 때. - 이형기, 「낙화」
- ㉣.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 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 보리라. - 황동규, 「즐거운 편지」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서술형

10 이 시에서 화자의 진심이 직접적으로 표현된 시구 두 개를 찾고, 그것에 담긴 화자의 정서를 서술하십시오.

중간·기말 시험 대비 문제

[01~0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가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A] —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별들을 낳을 수 있다
- ㉠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

- 나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에 내 말이 '잇었노라'
-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잇었노라'
-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잇었노라'
- 어제도 오늘도 아니 잇고
[B] — 먼 훗날 그때에 '잇었노라'

01 (가), (나)와 같은 글의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갈등과 해결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 ② 주로 인물의 대사와 행동에 의해 사건이 진행된다.
- ③ 글쓴이의 실제 경험과 깨달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 ④ 함축적 의미를 지닌 언어를 사용하여 주제를 표현한다.
- ⑤ 생각이나 느낌을 형식적 제약 없이 자유롭게 나타낸다.

0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화자가 처한 상황을 작품에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사물로 대신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두 대상을 대조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의성어와 의태어를 활용하여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필요

03 (가)에 쓰인 시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낮'은 소외된 이웃에 관심을 갖는 삶을 뜻하겠군.
- ② '별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리키겠군.
- ③ '어둠'은 미래를 밝게 만들어 주는 원천이 될 수 있겠군.
- ④ '별들'은 현실에서는 닿기 어려운 이상 세계를 의미하겠군.
- ⑤ '어둠'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외로움을 형상화한 것이겠군.

04 다음 중 (가)의 주제를 드러내는 명언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행동은 모든 성공의 기초다.
- ②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온다.
- ③ 재능에는 한계가 있지만 노력에는 한계가 없다.
- ④ 성공은 하루하루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의 합이다.
- ⑤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가장 강한 희망이 태어난다.

05 (나)와 <보기>에 공통된 운율 형성 요소로 적절한 것은?

보기

내 벗이 뗏이나 하니 수석(水石)과 송죽(松竹)
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그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섯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 윤선도, 「오우가」

- ① 같은 단어나 구절을 반복하고 있다.
- ② 음성 상징어인 의성어를 사용하고 있다.
- ③ 같은 위치에서 같은 음을 반복하고 있다.
- ④ 일정한 음보를 규칙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 ⑤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다.

고난도

06 (나)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말 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에 약산 /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 김소월, 「진달래꽃」

- ① (나)와 <보기>는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를 인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나)와 <보기>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에서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③ (나)와 <보기>는 처음과 끝에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나)의 화자와 달리 <보기>의 화자는 임에 대한 희생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나)는 임과의 재회를, <보기>는 임과의 이별을 가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07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시인이 시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
- ㄴ.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만들어 내고 있어.
- ㄷ. '별'이 지닌 특성에 대한 상식을 깨뜨리는 참신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
- ㄹ.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느끼는 절망적인 현실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중요 서술형 08

[B]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화자의 정서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십시오.

조건

- 화자의 정서는 근거가 되는 시구를 포함하여 쓸 것.
- '~로 보아, 화자는 ~하고 있다.'의 형태로 쓸 것.

중요 09 ㉠에 쓰인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표현하려는 내용을 강조하여 인상적으로 나타낸다.
- ② 대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효과를 지닌다.
- ③ 대상을 과장하거나 비꼬아서 비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다.
- ④ 의미상 서로 어울리지 않는 낯선 단어를 결합하여 참신한 느낌을 준다.
- ⑤ 겉보기에는 이치에 맞지 않지만 의미상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음을 깨닫게 한다.

서술·논술형 대비 문제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별들을 낳을 수 있다

㉠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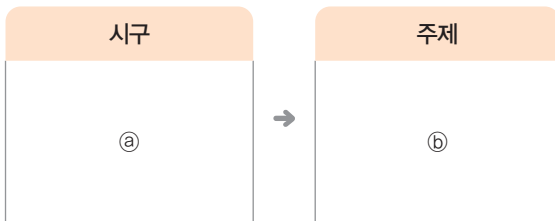
나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어제도 오늘도 아니 잊고
먼 훗날 그때에 ㉡ '잊었노라'

01 (가)의 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와 ㉣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십시오.



조건

- ㉢에는 주제가 드러난 시구를 찾아 쓸 것.
- ㉣는 '~수 있다.'로 끝나는 한 문장으로 쓸 것.

02 <보기>를 참고하여 ㉠에 쓰인 표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서술하십시오.

보기

- 대낮: 환히 밝은 낮.
- 어둠다: 빛이 없어 밝지 아니하다.

표현 방법	㉡
표현에 담긴 의미	㉢
표현 효과	㉣

03 (나)에서 ㉡에 사용된 표현 방법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서술하십시오.

[04~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건륭 10년(1745년, 영조 21년) 9월 모일에 이 증서를 만든다. 이 고을의 양반이 자신의 양반 자리를 팔아 관곡을 샀었는데 그 값이 쌀 천 석이니라. (중략)

그러나 양반은 절대로 천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늙은사람의 뜻을 받들고 본받아야 하느니라. 오경이 되면 일어나 촛불을 켜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눈으로는 코끝을 내려다보고 발꿈치는 모아 엉덩이를 받치고 앉아야 한다. 얼음 위에 박을 굴리듯 『동래박의』를 술술 외워야 한다. 배가 고파도 참아야 하고 추운 것도 견뎌야 하며 가난이란 말을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된다. 이를 부딪치며 뒤통수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고, 입안에 침을 머금고 양치질하듯 입맛을 다신 뒤에 삼켜야 한다.

소뿔자락으로 휘양을 닦아 먼지를 털어서 털 무늬를 일으키고, 세수할 때는 주먹을 문질러 씻지 말아야 하며, 양치질을 해서 입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호장이 이 증서를 다 읽고 나자 부자는 한참 동안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말했다.

“양반이라는 게 겨우 이것뿐이란 말입니까? 듣기에 양반은 신선이냐 마찬가지라 하던데 겨우 이것뿐이라면 그 많은 곡식을 바치고 산 게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니 좀 더 좋은 쪽으로 고쳐 주십시오.”

그러자 군수는 부자의 요청대로 증서를 고쳐 쓰기 시작했다.

다 하늘이 백성을 낳으실 때 네 종류로 나누었다. 이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선비, 즉 양반인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양반은 농사짓지 않아도 되고 장사하지 않아도 된다. 글공부만 조금 하면 과거를 치를 수 있는데, 크게 되면 문과요, 못돼도 진사는 된다.

㉠ 문과에 급제하면 홍패를 받는데, 비록 길이가 두 자도 못 되는 작은 종이지만 이것만 있으면 세상의 온갖 것을 다 얻을 수 있으니 돈자루라 할 수 있다. 나이 서른에 첫 벼슬길에 올라도 집안이 좋으면 이름을 드높일 수 있으며, 남인에게 잘 보이면 고을의 수령직에도 오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늘 양산을 쓰고 다니기에 귀밑머리는 하얘지고, ‘예이!’ 하는 종놈들의 대답을 듣다 보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방 안에 떨어진 귀걸이는 어여쁜 기생의 것이고, 뜰에 떨어져 있는 곡식은 학을 위한 것이다.

실사 가난한 선비가 되어 시골에 산다 해도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웃집 소를 가져다 자기 밭을 먼저 갈 수 있으며, 마을 사람을 불러 자기 밭의 김을 먼저 매게 할 수도 있다. 만약 어떤 놈이 이에 불만을 품거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코에 잣물을 들이붓고, 상투를 잡으며 귀얄 수염을 뽑더라도 원망할 수 없다.

라 군수가 증서를 반쯤 고쳐 쓸 때쯤 부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혀를 내두르며 말했다.

“제발 그만두십시오! 양반이라는 건 참으로 맹랑한 것이구려. 당신들은 지금 나를 ㉡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이시요?”

말을 마친 부자는 머리를 흔들며 서둘러 달아났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양반’이라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04 (가)와 (다)에 나타난 양반 매매 증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 ㉡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십시오.

	증서의 내용	예
(가)	양반의 의무와 규범	㉠
(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사나 장사를 하지 않아도 됨. • 부정적인 방법으로 출세할 수 있음.

조건

- ㉠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 가지 이상 쓸 것.

05 <보기>는 ㉠에 쓰인 표현 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에 쓰인 비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과를 서술하십시오.

보기

㉠에서 작가는 당시 양반의 부정적인 행태를 비판하기 위해 비유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06 <보기>를 참고하여 부자가 양반을 ㉢이라고 말한 까닭과 ㉢에 담긴 작가의 의도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십시오.

보기

질문: 이 글의 작가인 박지원이 주목한 당시 사회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답변: 조선 후기의 몇몇 양반은 평민들에게 횡포를 부리기도 했고, 일부 몰락한 양반은 돈을 많이 모은 평민들에게 신분을 팔기도 했어요. 이렇게 되자 평민들은 더 이상 부패하고 무능한 양반을 신뢰하지 않았지요.

조건

- ㉢에 담긴 작가의 의도는 <보기>의 답변에 제시된 단어를 두 개 이상 활용하여 쓸 것.

1

다채로운 표현, 함께 만드는 영상

1 개성적인 표현

소단원 핵심 미리 보기 본문 8~11쪽

핵심 확인 문제 | 1 개성 2 (1)역 (2)반 3 ③
 4 ㉠ 대낮 ㉡ 어둠 5 ④ 6 별 7 ① 8 반어
 9 ③ 10 ② 11 ④ 12 의무, 특권 13 도둑놈

- 1 자신의 삶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표현하여 작품을 완성하는 것을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의 형상화라고 한다.
- 2 (1) 길이 끝났는데 길이 있다는 것은 모순된 표현이다. 모순된 표현을 통해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이 존재함을 나타내는 역설적 표현이 쓰였다.
 (2) '바보'는 '어리석고 멍청하거나 못난 사람을 욕하거나 비난하여 이르는 말'을 뜻한다. 하지만 씹던 껌을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 '너'의 모습은 바르고 순수한 모습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바보'는 반어적 표현이다.
- 3 풍자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과장하거나 왜곡하거나 비꼬아서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표현 방식이다.
- 4 '대낮'은 대낮처럼 밝고 만족스러운 상황을, '어둠'은 어둠에 처한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상징한다.
- 5 '대낮'이 '어둠'이라는 모순된 표현 안에 진리를 담고 있는 역설적 표현이다.
- 6 이 시는 어둠 속에서만 빛이 나는 별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만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주제를 전하고 있다.
- 7 먼 훗날 입을 다시 만나는 미래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 화자는 입과 이별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 8 먼 훗날에 가서야 '잇었노라'라고 말하겠다고 반복하면

2 정답과 해설

서 먼 훗날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못하는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9 시행은 '시의 행'을 말하는 것으로, 이 시에서는 시행 자체를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지 않다.
- 10 이 시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먼 훗날에 '당신'을 만나게 될 상황을 가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1 이 글에 등장하는 양반은 관곡을 갚지 못해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한다. 따라서 양반도 잘못하면 처벌받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양반과 부자가 신분을 매매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양반은 가난해도 존경을 받지만 평민은 부유해도 늘 천대를 받는다고 부자가 불만을 토로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강원도 정선에 사는 양반이 가난하여 늘 관곡을 꾸어다 먹었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부자의 신분은 평민이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했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 첫 번째 매매 증서는 양반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두 번째 매매 증서는 양반이 지닌 특권을 서술하고 있다.

13 작품의 결말에서 부자는 양반을 '도둑놈'에 빗대어 표현하면서 백성을 착취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부도덕한 양반의 모습을 비난하고 있다.

소단원 핵심 확인하기 본문 12~13쪽

핵심 체크 | 1 × 2 ○ 3 × 4 ○
 핵심 내용 확인 문제 | 1 ④ 2 ④ 3 ③ 4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만이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다.

1 '별들', '어둠', '대낮', '지금', '사람들' 등의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고,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과 같은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만들어 내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시에 '나', '우리' 등의 표현이 제시되는 경우에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다고 하는데, 이 시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
- ② 이 시에 계절적 배경은 드러나 있지 않다.
- ③ 현대 사회의 모습을 다룬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⑤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금 어둠인 사람들'이라는

상징적 의미의 시구로 표현하고 있을 뿐, 이들이 겪고 있는 절망감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은 없다.

2 이 시는 '대낮(밝음)'과 '어둠'처럼 대비되는 이미지를 대조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ㄴ), '별', '어둠', '대낮' 등의 소재가 지닌 상징적 의미를 사용하여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ㄹ).

오답 해설

- ㄱ. 설의적 표현은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답을 요구하지 않는 표현으로, 이 시에는 의문형의 문장이 쓰이지 않았다.
- ㄴ. 반어적 표현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반대로 나타내는 표현 방법으로, 이 시에는 반어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3 의인화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으로, ㉠에는 의인화한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다.'로 끝맺는 평서형 문장 표현의 단정적 어조가 사용되었다.
- ② 밝고 환한 '대낮'과 '어둠'이라는 모순된 표현을 결합하여 현실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은 희망과 꿈을 보지 못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역설적 표현이다.
- ④, ⑤ 역설적 표현은 상식에 맞지 않고 서로 어울리지 않는 표현으로 독자의 주의를 끌고 참신한 느낌을 주는 효과가 있다.

4 [서술형] '지금 어둠인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별들'은 꿈과 희망을 뜻한다. 따라서 ㉠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만이 꿈과 희망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뜻을 함축한다.

본문 14~17쪽

교과서 활동 점검하기

| 시험에 꼭 나오는 활동 확인 문제 | 1 ④ 2 ② 3 ③
 4 ⑤ 5 ① 6 구린내가 향기롭다.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가 너그럽다 7 ① 8 ② 9 ② 10 ③
 11 ㄱ

1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라는 구절을 통해 별이 어둠 속에서만 빛이 난다는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

2 '대낮'은 밝고 만족스러운 상황을, 그와 반대로 '어둠'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⑤ '별', '별들'은 꿈과 희망을 의미하고, '사람들'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 시어가 아니다.

3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금 대낮인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 주는 것으로,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꿈을 꾸거나 희망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는

표현이다.

4 '환히 밝은 낮'이라는 뜻을 지닌 '대낮'과 '빛이 없어 밝지 않다'라는 뜻을 지닌 '어둠'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표현으로,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둠'은 모순된 표현 안에 진리를 담아내는 역설의 표현 방법이 쓰였다.

5 역설에는 겉보기에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은 표현이 쓰이기 때문에 역설을 사용하면 독자의 주의를 끌고 의미를 인상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ㄴ. 역설적 표현은 겉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고 모순된 표현이기 때문에 독자가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 쉽지 않다.
- ㄹ. 역설적 표현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모순된 표현이 결합하여 독자에게 신선한 느낌을 준다.

6 '구린내'와 '향기롭다', '가시'와 '너그럽다'는 겉보기에 서로 어울리지 않는 모순된 표현이다. 하지만 구린내와 날카로운 가시는 열매를 지켜 내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자연의 보호가 사랑의 표현임을 드러내고 있다.

7 이 시는 '먼 훗날 ∨ 당신이 ∨ 찾으시면 / 그때에 ∨ 내 말이 ∨ 잊었노라', <보기>는 '아리랑 ∨ 아리랑 ∨ 아리랑요 / 아리랑 ∨ 고개로 ∨ 넘어간다.'와 같이 각 행이 3음보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3음보를 반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② 이 시와 <보기>는 모두 처음과 끝에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지 않다.
- ③ 이 시와 <보기>는 대체로 3글자, 3글자, 4글자가 반복되는 3·3·4조의 음수율을 보이고 있다.
- ④ 이 시와 <보기>에는 모두 소리를 흉내 내는 말인 의성어와 모양을 흉내 내는 말인 의태어가 쓰이지 않았다.
- ⑤ 이 시는 '~면 잊었노라'의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지만, <보기>는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지 않다.

개념 플러스

음보율과 음수율

- 음보율: 음보를 일정하게 반복하여 만들어 내는 운율. 음보란 시를 읽을 때 한 호흡으로 끊어 읽는 말의 덩어리를 뜻함.
- 음수율: 글자 수를 일정하게 반복하여 만들어 내는 운율. 3·4조, 4·4조, 7·5조 등이 있음.
- 예) 이 몸이(3) ∨ 죽고 죽어(4) ∨ 일백 번(3) ∨ 고쳐 죽어(4) (4음보)
 백골이(3) ∨ 진토 되어(4) ∨ 낮이라도(4) ∨ 있고 없고(4) (4음보)
 임 향한(3) ∨ 일편단심이야(6) ∨ 가실 줄이(4) ∨ 있으랴(3) (4음보)
 - 정몽주
 → 음보율: 4음보가 반복되어 4음보율이 나타남.
 → 음수율: 3글자, 4글자가 반복되어 3·4조의 음수율이 나타남.